

## &lt;현대미술 속으로&gt;

김정희(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 7. 제 2차 세계대전과 미술

**바우하우스(Bauhaus):** 1919 년에 Weimar 에 설립되어 1925 년 Dessau 로, 1932 년에는 Berlin 으로 옮겨졌다가, 1933 년 4 월 나치 경찰에 의한 폐교하게 된 새로운 교육방식과 현대적 조형을 교육한 독일 국립미술연구소. 그 후 이 전통은 시카고의 The New Bauhaus 로 이어짐.

1919 년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의 지휘 아래 기존의 바이마르 미술학교와 1915 년 해체된 한스 판 드 펠데(Hans van de Felde)의 예술공예학교의 잔여 조직이 결합하여 바이마르에 만들어짐. 1919 년 프로그램에서 그로피우스는 “모든 미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축(Bau)이다”라고 씀. 이에 따라 바우하우스에서는 “위대한 건축”을 중심으로 하여 수공업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미술과 건축을 환상적으로 종합한 총체예술작품(Gesamtkunstwerk)을 위해 미술가들이 함께 봉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신적-예술적인 교육과 실용적-수공업적 교육을 결합시키고자 함. 그로피우스는 공방과 연결된 교육을 강조. 예술과 기술의 통일을 추구. 순수 미술과 응용미술의 구분 철폐.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마련된 준비과정 수업을 강조. 학생들은 공방에서 기술을 익히고 일정 시간 공방에서 작업을 하여 부분적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했고 수공업회의소에서 도제와 마이스터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공업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가 1923 년의 과제전 모토는 “미술과 기계-하나의 새로운 통일”이 됨. 설립 당시 사회주의-낭만주의적 유토피아 이상이 “완전한 건축”이라는 이상에 의해 포기됨.

**다섯 시기로 나뉨**---제 1 기(1919-1922):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Weimar/ 제 2 기(1923-25) / 제 3 기(1925-28): 1927 이후 교장: 한네스 마이어(Hannes Meyer), Dessau/ 제 4 기(1928-30)/제 5 기(1930-33): 교장: 미스 반 데어 로헤(Ludwig Mies van der Rohe), 1932-33, Berlin/ 시카고의 바우하우스: 제 1 기부터 바우하우스 마이스터였던 Moholy Nagy 가 1937 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시카고에 The New Bauhaus 를 설립하여 시카고 디자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 1938 년에 문을 닫음.

**파시즘과 미술**

1930 년대 파시즘 정부들은 대규모 전시를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홍보하기 위해 사용. 대표적인 국제전은 베니스비엔날레와 국제대박람회이고, 국내전은 독일의 대독일미술전과 “퇴폐미술”전임

**독일 국가사회주의와 미술:** 대독일미술전(1937-1944)과 “퇴폐미술”전(1937-41)

대독일미술전(Große Deutsche Kunstausstellung):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의 관영미술을 해마다 보여준 전시로, 이를 위해 1933 년 히틀러 명령에 따라 준비해 히틀러가 “독일 미술의 수도”라고 칭한 München 에 건설된 “독일 미술의 집”에서 1937 년부터 1944 년까지 8 회 열림. 제 1 회 전은 1937 년 7 월 18 일 3 일 동안 계속된 거대한 개막식행사와 함께 시작.

“퇴폐미술(Entartete Kunst)”: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통치 동안 국가사회주의의 예술관과 이상이 개념에 맞지 않는 미술을 칭한 용어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종이론을 이유로 들어 폄훼하고 근절하기 위해 만들.

“퇴폐미술(Entartete Kunst)”전: 대독일미술전 개막 다음 날인 1937년 7월 19일 뮌헨 대학의 고고학과 건물의 일부인 아케이드에서 열림. 현대미술을 모욕하기 위해 준비된 이 전시는 “불명예전”으로도 불림.

히틀러의 명령을 받은 당시 ‘국민 계몽 및 선동부’ 장관이었던 Joseph Paul Goebbels는 1937년 6월 30일, 즉 전시회 시작 18일 전에 자신의 ‘제국 문화국’ 산하에 있던 ‘제국미술부’의 대표이자 뮌헨 미술 아카데미의 교수였던 화가 Adolf Ziegler에게 공문을 보내 전시 준비를 지시. 괴벨스는 이 편지에서 “한 전시회를 목적으로 독일 전역의 공공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회화와 조각 가운데 1910년 이후의 독일의 타락한 미술작품들을 선정하여 확보해 놓을 것”을 지시. 이 지시를 받은 치글러는 즉시 화가, 미술관장, 건축가 5명, 그리고 정부쪽에서 파견한 감시관 1명과 함께 전국 미술관 순회를 떠남. 그들은 전시회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여 그 목록을 만든 후 작품과 목록을 뮌헨으로 운송하였는데, 이들의 소위 ‘정화 작업’에는 열흘이 채 소요되지 않음. 몇 점의 작품이 수거되었는지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1937년 최소한 1만 6천 5백 58개의 작품들이 압수되었던 것으로 추측됨. 이 가운데 650점이 9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시됨. 이 작품들은 1910년부터 히틀러가 집권한 해인 1933년 사이에 제작된 독일 인상주의, 표현주의, 구성주의, 신즉물주의, 바우하우스와 다다이즘의 작품들이었는데, 최대한도로 관객의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졸속하게 전시됨. 이 전람회의 반응은—주최자의 의도대로—너무도 대단하여 전시 기간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장사진을 이룬 방문객 때문에 수시로 전시장 입구를 봉쇄했었다고 전해짐. 공식 집계에 의하면 유사 이래 최고로 기록적인 숫자인 2백 만 9천 8백 99명이 7월 19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이 “퇴폐 미술” 전을 관람.

이 전시는 뮌헨에서 4개월 이상 진행된 후 1938년부터 1941년 4월까지 그 내용이 변경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12개 도시에서 계속 보여짐. 이 전시회의 반응은 굉장하여 1939년 3월까지 65개에 달하는 도시가 이 전시회를 열 것을 신청했다고 전해짐. 뮌헨전이 다른 도시를 순회하게 된 것도 괴벨스의 구상에 의해서인데, 이 순회전에서 총 3백 2십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됨. 한편 1938년 뒤셀도르프에서는 제국음악제와 함께 『퇴폐음악』 전시회가 있었음.

나치 정부는 1938년 11월 17일 ‘퇴폐 미술품 처분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갖고 스위스의 루체른에 소재한 휘셔 화랑에서 경매에 부칠 미술 작품의 목록을 작성. 경매 계획은 괴벨스가 히틀러와 함께 두 시간 동안 그림이 쌓여 있던 창고를 순회한 후 쓴 그의 1월 13일자 일기에서 부터 시작됨. 괴벨스는 그의 일기에 ‘미술 작품처분계획’의 구체화 과정을 계속 기록하였는데 12월 13일에 “팔만한 그림들은 외국에 팔고 공모전의 다른 작품들은 한군데로 모으거나 파괴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씀. 압수된 미술 작품들은 그 ‘현금과 가치’에 따라 분류되어 국제적으로 판매될 만하다고 여겨진 것은 베를린의 Niederschönhausen 궁에 모아짐. 이곳에 7백 80점의 유화와 조각, 3천 5백 점의 판화, 수채화, 소묘 작품이 남고, 그 외 소위 ‘현금화 가치가 없는’ 1천 4점의 유화, 3천 8백 25점의 판화, 수채화, 소묘 작품들은 베를린의 쿠페니거 가에 있는 창고로 옮겨졌다가 1939년 3월 20일 모두 불에 타버리게 됨.

이 작품들의 소재를 모두 추적하기는 불가능. 이 작품들이 부분적으로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벨스는 1939년 11월 4일 일기에 “퇴폐 미술은 우리에게 많은 외국돈을 가져다주었다. 이 돈은 우선 전쟁 자금을 쓰이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미술 작품 구입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씀. 히틀러 정부에 의해 ‘퇴폐 미술가’라 낙인찍힌 미술가들은 상당수가 직장과 전시기회를 잃음. 그로피우스, 베크만, 에른스트, 화이닝거, 그로츠, 하우스만, 클레, 칸딘스키, 이텐, 슈비터스, 모홀리 나기 등 약 25명의 미술가들은 많은 문학가들과 함께 1933년 이후 속속 외국으로 떠났고, 디스 외의 많은 미술가들은 ‘내부적 이민’이라 하여 은둔 생활을 함. 누스바움, 후로인드리히 같은 유대인 미술가들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함.